

# 서신 왕래를 통해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관계 1973-1992<sup>\*</sup>

노명환<sup>\*\*</sup>

## 차 례

- I. 머리말
- II. 김대중의 동경 납치 시점에서부터 박정희 유신정권 붕괴  
까지 (1973-1979)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 사이의 서신  
왕래
- III. 전두환의 신군부와 정권에 의한 김대중 박해와  
(1980-1987.6)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사이의 서신  
왕래
- IV. 1987년 6월 항쟁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서신 왕래
- V. 맺음말

## I. 머리말

그동안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정책과 사상, 삶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두 사람이 교류한 서신들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 및 정책, 사상,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서신들에 의하면 두 사람은 1973년 김대중이 동경에서 납치된 시점부터 1992년 빌리 브란트가 타계하기 까지 20년 동안 깊은 인간적 그리고 동지적 관계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

를 발전시켜 간 것으로 보인다. 직접 서로 만난 것은 1989년 10월이 처음이니 긴 기간 동안 서신에 의해서만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간 것이었다. 물론 다양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서로의 당시 현재 활동 모습과 살아온 과정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직접 보지 못하고 서신들을 통해 이렇게 깊은 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매우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신들은 거의 주로 독일의 본(Bonn)에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재단 건물 내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아카이브(Archiv)에 보존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빌리 브란트 아카이브(Willy Brandt Archiv)를 각 첫 문자를 따서 WBA로 표기하겠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서신들 및 기타의 사료들은 필자가 이곳 아카이브에서 발견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이들을 복사하여 김대중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기록들을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필자가 발견한 서신 중 첫 번째 시기의 것은 1979년 10월 20일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보낸 것이다. 1979년 이후의 서신 내용들을 볼 때,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도 서신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발굴 작업을 진행할 필요를 느낀다. 이 서신 내용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정책 및 신념들을 나타내 주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사의 중요한 지점들을 담고 있다. 이 서신 내용들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매우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을 보면 김대중의 편지들이 상세하고, 발신 횟수에서도 더 자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김대중의 상세한 편지 내용에 대해 브란트가 짧게 반응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브란트의 입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당시 김대중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택연금, 망명 등의 상황에서 여러 현직을 수행하던 브란트보다 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신의 내용들이 많은 경우 위협에 처한 김대중에 대한 브란트의 지원과 구명 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1987년 이후 동방정책과 햇볕

정책 등의 분단극복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두 사람 사이의 서신에서 그리고 실제 만나서 나눈 대화들 속에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실제 만나는 것은 1989년 10월로서 서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놀라움을 두 사람도 느꼈던 것 같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국땅에 서로 떨어져 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레 교감을 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신기할 뿐이다.”<sup>1)</sup> 그는 브란트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빌리 브란트 수상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독재와 싸웠고, 공산주의와 싸웠고, 분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봉과 정의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 서로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신념과 열정을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의 신뢰와 우정은 깊어졌습니다.”<sup>2)</sup> 이러한 상황은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삶과 철학, 정치에 대한 공감과 신뢰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두 사람 사이의 서신 내용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과의 서신 내용들과 일정한 맥락(context)들을 구성한다. 이러한 연계 속에서 또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본문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 빌리 브란트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sup>3)</sup> 사이의 서신 교환, 그리고 브란트와 그의 보좌관 사이의 서신교환이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준다. 린저의 서신

1) 『김대중 자서전』 1, p. 569.

2) 두 사람 모두 다양한 스펙트럼 속의 반공주의자였다는 측면에 대한 연구는 노명환,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김동춘, 기외르기 스텔, 크리스토프 폴만 외 지음,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서울: 돌베개 2015. 앞으로는 노명환,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로 표기.

3) 루이제 린저(1911-2003)는 독일의 작가로 나치시기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으며, 전후에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빌리 브란트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생의 한가운데’라는 에세이집으로 특히 한국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재독 음악가 윤이상과 각별한 교류를 하였고 그와 함께 대담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분단 상황, 그 중에서도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실제 방문하기도 하였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에서 한국의 사회민주당을 창당하려던 움직임 등은 우리에게 대단히 새로운 내용이다. 1980년 김대중의 사형이 예견되던 시기에 브란트의 사람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되었던 김대중을 유럽으로 망명 시키려는 내용 등도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사안들이다.

두 사람 사이의 교류와 서신 왕래를 첫째, 김대중의 동경 납치 시점에서부터 박정희 유신정권의 붕괴 (1973-1979) 지점까지, 둘째, 전두환의 신군부 독재 정권 시기 (1980-1987), 셋째,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빌리 브란트 서거까지 (1987-1992)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서독과 남한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갖게 된 우정, 격려와 도움, 동질감과 연대 의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그리고 달리 관련되는 서신 내용들을 그 동안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폭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각자의 삶과 철학,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일어 및 영어로 된 서한들 그리고 여타의 기록들은 필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기록들의 원문을 김대중 도서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역이나 기타의 문제점들은 추후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 서한의 내용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역사화 작업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기에 추후의 연구들을 독려하는 뜻에서 되도록 원문을 많이 인용하고자 한다. 추가적인 사료 발굴 작업과 당시 관련 인사들의 구술 채록 작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 II. 김대중의 동경 납치 시점에서부터 박정희 유신정권 붕괴까지 (1973-1979)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 사이의 서신 왕래

빌리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3년 8월 동경 납치사건과 더불어서 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란트는 김대중의 정치가로서 활동, 민주화 투쟁, 평화통일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 때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브란트의 삶과 만나치 투쟁의 이력에 주목했다. 이 비상한 관심 속에서 그는 브란트 개인의 삶과 정치철학 및 정치여정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브란트가 1969년에 수상이 되어 동방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는 그와 그의 활동이 김대중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인 1971년 2월 3일 미국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동방정책 지지 선언을 하였다.<sup>5)</sup> 같은 해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서 동방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빌리 브란트가 1966년 외무장관이 되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였을 때, 김대중은 같은 해에 국회에서 이 할슈타인 원칙 폐기를 또한 주장하였다. 이 할슈타인 원칙은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외교원칙으

4) Hélène Miard-Delacroix, *Willy Brandt. Life of a Statesman*, London/New York (I.B. Tauris) 2016.

5)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유럽통합과 독일의 분단·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 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김대중 전대통령 기조강연문, (2009년 5월 21일 목, 한국외국어대 조명덕홀). 앞으로는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로 표기.

로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 그 수교국에 적용되고 있었다. 동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1970년부터 독일에서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주권 국가 인정, 동서독의 유엔 동시 가입 등이 논의되었는데,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에 북한에 대한 인정과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였다. 1972년 남북적십자 회담에 의한 7·4 공동성명이 있고 나서 그는 7월 9일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김대중의 이러한 정책의 주장은 박정희 정권이 그를 ‘용공분자’, 즉 ‘빨갱이’로 집요하게 낙인찍을 수 있는 빌미로 작용했다. 그런데 김대중은 이러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모방해서 자신의 정책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설계해 오던 통일방안과 많은 유사점을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면밀히 동방정책의 진행 상황과 전개 방향을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 김대중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문제에 눈을 뜬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구상해 오던 것과 유사한 분단극복 정책이 브란트에 의해서독에서 실시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면서 자신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대중은 일찍부터 국회에서 유사한 정책들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이전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sup>6)</sup> 이번의 서신 교환 내용 분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중은 후에 1977-1983년까지 브란트가 유엔 산하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의 협력과 공영을 위한 남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해온 일까지 놓치지 않고 주목했다. 1984년 8월 3일 김대중이 미국에서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당신의 반나치 투쟁에 대해, 서베를린 시장으로서의 빛나는 업적, 수상으로서 사회 정의와 동방정책을 위한 헌신에 깊은

6)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No. 30 (2012. 02), P. 144; 노명환,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9호 (2013. 02), p. 233.

감동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반구와 북반구의 문제에 대한 당신의 강력한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sup>7)</sup>

빌리 브란트는 외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한국의 분단 상황 그리고 그와 연관된 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67년 8월 7일 한국중앙정보부(KCIA)가 발표한 간첩단 사건으로 소위 ‘동백림 사건’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외무장관으로서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자요 동지였던 린저(Luise Rinser)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다. 린저는 당시 재독 음악가 윤이상과 상호 연구의 관심사로서 교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동백림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sup>8)</sup> 브란트가 외무장관일 때 발생한 이 사건은 그의 재임 시기인 1969년 2월에 주요 관련자들이 석방됨으로써 매듭지어졌다. 브란트는 남과 북이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각각 반공주의와 반제국주의 이념과 함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보기에 남한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큰 영향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약소국이고 독재 시스템 하에 있는 남한이 더욱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백림 사건’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남한, 미국, 서독의 정보기관들의 업무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 외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sup>9)</sup>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독 외무부는 남한 정부에게 영토 주권 침해,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7) 김대중이 미국에서 1984년 8월 3일에 보낸 편지. WBA(Willy Brandt Archiv),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36, Laufzeit: 01.1984 - 12. 1984.

8) 이에 대해서는 윤이상과 린저의 대화집 참조. Isang Yun/ Luise Rinser, *Der Verwundete Drache. Dialog über Leben und Werk des Komponisten*, S. Fischer Verlag GmbH 1977. (번역서: 정태남역, 『윤이상과 루이제 린저의 만남!, 상처받은 龍』, 서울: 영학출판사 1988; 홍은미역, 『윤이상, 상처입은 용. 윤이상·루이제 린저의 대화』, 서울: 랜덤하우스 2005; 윤이상 추모 기념사업회의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출간, 『윤이상, 상처입은 용』,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7).

9) 이에 대해서는 당시 외무부 장관 Willy Brandt가 연방 수사국장, 내무부 장관 등과 함께 1968년 3월 21일 출간한 비망록 (Memorandum) 참고.

그는 주한 독일 대사관의 슈미트(Schmidt)를 통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집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10)</sup> 그러면서 브란트는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서독의 외무부 장관으로서 신중히 처신했다. 그는 이 시기 서독과 이념적으로나 체제상 유사한 위치에 있는 남한의 독재체제와 사회의 질곡에 대해 관심을 더욱 크게 갖게 되었다.

브란트는 이 사건이 종결된 해인 1969년 10월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는 수상으로서 ‘동백림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1973년 8월 김대중의 납치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필자가 연장선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백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한국의 분단 상황과 남한의 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한국의 독재 상황과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 가운데 김대중의 정치활동 및 민주화 투쟁,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의한 박해가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브란트는 김대중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철학 및 평화적 분단 극복 정책이 자신의 것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그는 김대중의 구명 운동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 나섰다.<sup>11)</sup>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특히 미국에 강력히 촉구했다.<sup>12)</sup> 이에 대해 다음에서 소개하듯 브란트에게 보낸 김대중의 편지와 브란트의 답장 및 그의 당시 활동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정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또 유추할 수 있다. 브란트의 김대중에 대한 지원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한, 특히 분단국의 독재치하에서 박해받는 민주투사에 대한 연대(solidarity)의 뜻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 이에 대해서는 윤이상의 증언, 정태남역, 『상처받은 용』, p. 186.

11) 『김대중 자서전』 2, p. 240.

12) 필자는 이 당시의 상황이 독일 사민당 기관지 '전진 (Vorwärts)', 그리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I)'의 기관지 '사회주의 문제(Socialist Affairs)', 당시의 기자회견 내용들에 나타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작업을 벌여왔으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납치에서 풀려난 이후 김대중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브란트와 서신 교환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필자는 이 당시에 교환된 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상황이 허락지 않아 김대중이 편지 작성을 실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필자가 찾은 두 사람 사이 이루어진 서신 왕래의 첫 번째 것은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것이다. 이 서신에서 김대중은 브란트의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도쿄에서 납치되어서 일주일간 생과 사의 기로에 섰다가 육지에 상륙하여 1973년 8월 13일 우리 집 앞에 놓이기 까지 당신은 나를 위해 국제 사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sup>13)</sup> 이 이후의 서신들에서도 이 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1984년 8월 3일 여름 미국에서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당신의 엄청난 지원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1973년 8월 8일 한국 중앙정보부가 일본 도쿄에서 나를 납치했을 때 이후로 당신은 나의 생명 보트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당신의 지원과 염려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sup>14)</sup> 그는 특별히 1973년 동경 납치사건 때 브란트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통해 개인적인 유대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억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의 자서전에서도 술회했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 전두환 독재 시기에 브란트가 추진해 준 구명 운동과 함께 김대중은 독일을 그를 위한 구명 운동의 거점으로 기억했다.<sup>15)</sup>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평생 신세만 졌다.”<sup>16)</sup>는 마음을 지녔다.<sup>17)</sup>

13)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14) 김대중이 미국에서 1984년 8월 3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36, Laufzeit: 01.1984 - 12. 1984.

15)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240.

16)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259.

17) 필자는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대단히 깊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실제 경험

1976년 명동 성당에서 김대중이 그의 동지들과 3·1 구국선언을 하고 구속되었을 때도 브란트는 김대중을 위해 적극 석방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것도 김대중의 10월 20일자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1976년 3월 박정권의 독재와 국민에 대한 침탈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선언을 하고 다른 17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을 때, 당신은 또한 나를 위해 깊은 우려를 표해 주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당신은 또한 나의 옥중 생활 동안 깊은 우려를 표해 주었습니다.”<sup>18)</sup> 1974년 빌리 브란트는 수상 직을 사임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자신의 비서 기욤(Günter Guillaume)이 동독의 간첩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결단으로 수상 직을 사임하였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기간은 자살도 생각할 정도로 그에게 심적으로 대단히 큰 위기의 시기였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면서 그는 한국의 민주투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석방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브란트는 1978년 11월 3-5일에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up>19)</sup> 총회에 김대중을 초청했다. 당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이

---

한 바 있다. 필자가 중심이 되어 한국외대와 독일 빌리 브란트 재단이 공동으로 2009년 5월 20~23일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초청했는데, 당시 몸이 많이 불편한 상황에서, 다른 행사들에 거의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브란트 재단하고 함께 하는 학술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휠체어를 탄 채 참여하여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에 대한 구술 증언에 해당하는 강연을 해주었다.

18)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19)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 SI)은 195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성되었다. 그 먼 전신으로 우리는 1889년에 설립되고 1914년에 해체된 제2 인터내셔널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의 해체와 함께 일부 구성원들이 국제 사회주의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1923년 ‘노동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개명되었다. 이 조직이 1951년 7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탄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보다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회민주주의, 개량적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및 노동 계열 중도좌파 정당들의 국제적 연합체로 탈바꿈하여 탄생했다. 5대 의장이 빌리 브란트로서, 그는 1976년부터 1992년 사망시점까지 봉직했다.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가 서신 왕래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브란트는 항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

이 총회를 준비하던 기록들에 의하면, 김대중이 확실히 초청되었고 초청을 수락했음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78년 10월 12일 그리고 11월 1일에 작성된 총회 프로그램의 참석 예정자 명단에 김대중이 들어 있다.<sup>20</sup> 그러다가 11월 2일에 작성된 최종 프로그램에는 ‘투옥으로 인한 불참 통보자’로 분류되어 있다. ‘Apologies, Kim Dae Jung (imprisoned) South Korea’로 기록되어 있다.<sup>21</sup> 즉, 하루 만에 내용이 바뀌어 있다. 급하게 불참통보가 왔음을 의미한다. 총회가 끝난 후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문건에서도 김대중이 투옥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위와 똑같은 내용을 알렸다.<sup>22</sup> 이 초청과 수락을 놓고 김대중 사람들과 브란트 사람들이 서신 교환 내지는 어떤 형태의 소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당시의 예정 프로그램에 김대중 이름이 참석자로 올려 질 수 없고, 또 회의 시작 하루 전의 프로그램에서 투옥으로 인한 불참자로 기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서한이나 어떤 소통에 대한 기록들을 찾지 못했다. 당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김대중 사람들을 찾아 구술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텐데, 필자가 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이 초청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의 위 편지는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 “지난해 12월에 나를 국제사회주의 회의에 초청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습니다.”<sup>23</sup> 이 편지에서 ‘지난해 12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편지 쓸 당시의

---

이었다. 두 사람을 위해 1980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총회가 의미가 컸다. 브란트는 여기에서 김대중 구명 운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20) Program for the Fourteenth Post-War Congres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Oct. 12, 1978, 1978-10-12\_SI G 13-78 [AdsD, WBA., A13, 25A]; Second revised Provisional List of Participants, Guests and Observers, (Nov. 1, 1978), 1978-11-1\_revised provisional list [AdsD, WBA., A13, 26A].
- 21) Fourteenth Post-War Congres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Vancouver, November 3~5, 1978. Final List of Participants, Guests and Observers, 1978-11-2\_Final list [AdsD, WBA., A13, 26A].
- 22) Fourteenth Post-War Congres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Vancouver, November 3~5, 1978. Summary of Proceedings and Principal Decisions, 1979-1-22\_SI G 1-79 [AdsD, WBA., A13, 28].

착으로 보인다. 회의가 이미 11월 3~5일에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11월 12~14일에 개최된 스페인 마드리드의 총회에는 초청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1978년 밴쿠버 총회 한 달 후인 12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 보다 일찍 풀려날 것으로 예측하여 초청에 대한 수락을 하였으나, 12월이 되어서야 석방되었다. 김대중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행유예가 늦추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브란트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김대중을 초청하고자 한 것은 각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대중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노선에 맞는 사람으로 브란트가 파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시 브란트의 초청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브란트의 이러한 그에 대한 지원 활동을 그의 망명투쟁과 연계하여 평가했다. “나는 당신의 이러한 인본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행위가 분명히 당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망명생활을 통해 겪었던 그 질곡의 경험에 기인한다고 확신합니다.”<sup>24)</sup>

김대중은 단지 분단된 국가의 우방 국가 지도자들이었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은 빌리 브란트의 삶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정치 철학을 자신의 것과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리 브란트가 또한 역으로 그럴 것이라고 김대중은 위의 서한에서처럼 확신하고 있었다. 그 연대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후에 쓰여진 1984년 여름 편지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의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당신의 정치적 캐리어를 면밀히 주목해 왔습니다.”<sup>25)</sup> 다음에 설명하듯이 이러한 김대중의 편지들에 대해 브란트가 항상

23)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24) 위 서한. 앞으로 동일한 출처의 편지를 의미할 때는 ‘위 서한’으로 표기하고, 문서를 의미할 때는 ‘위 문서’로 표기한다.

25) 김대중이 미국에서 1984년 8월 3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1,

깊은 감동과 함께 답장들을 쓴 것을 보면 김대중의 확신이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10월 20일자 편지에서 김대중은 브란트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나는 당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들, 예를 들어 당신이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 대중정당으로서 시민당의 긍정적인 발전, 대연정 정부에 참여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력, 세계의 공존을 상징한 동방정책의 기초 작업에서 당신이 보여준 업적, 나는 역사 속에 각인될 이 동방정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오랫동안 통치를 한 예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역사에는 성공한 경제의 업적을 자랑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같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도 역사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들을 봅니다. 이들의 경우 현실 정치가로서 현실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지만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그리고 항구적인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들입니다. 당신이 수상 직에서 물러 난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세계의 인류가 현직의 수상보다도 더 당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요?”<sup>26)</sup> 이러면서 김대중은 브란트의 업적이 한국인들에게 보다 큰 의미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러한 당신과 당신의 업적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한 민족이지만 서로 간에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sup>27)</sup>

김대중은 브란트와의 관계를 증언하는 한 강연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20세기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심오한 철학,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

---

Signatur (alt): 136, Laufzeit: 01.1984 - 12. 1984.

26)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27) 위 서한.

감한 투쟁, 적대관계에 있는 동족과의 화해, 대담한 정책적 결단과 뛰어난 실천력,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와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갖게 된 것을 단순히 그의 조국인 독일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 세계의 행운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sup>28)</sup>

김대중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 반독재 투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편지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지난 해 12월 3개월의 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나는 5년 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의 현재의 삶은 감옥살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석방 후에도 정부에 대한 나의 비판 때문에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가장 최악의 것은 지난 10개월 동안 2개월의 예외를 두고 가택연금 하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나를 방문할 수 없고 나도 누구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이 정복 혹은 사복차림으로 지키고 서 있습니다. 내 비서들은 늘 한번 집을 나서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근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장소에는 갈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감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현재 나의 심리적 상황은 감옥살이 할 때 보다 더욱 취약합니다. 내 아내가 몇 차례 서면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우는 현재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수차례 이러한 위헌사항을 고발했습니다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택연금, 감시, 미행, 전화도청. 그들은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까지도 현대의 기기들을 이용해 도청합니다. 우리 이웃집은 중앙정보부의 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 하려면 글로 써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sup>29)</sup> 우리는 이 서한을 통해서 당시 가택연금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김대중의 서한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접하는 브란트는 큰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망명투쟁 시기를 또한 떠올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이 후에 김대중이 자서전에서 술회하는 내용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의 머리말에서도 인용한 바, 그 술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국땅에 서로 떨어져 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레 교감을 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신기할 뿐이다.”<sup>30)</sup> 김대중은 이렇게 박해받는 상황을 알리면서 브란트의 만나치 투쟁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동병상련의 연대의식을 제기했다. “당신은 히틀러 정권하에서 겪은 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일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sup>31)</sup> 그러면서 김대중은 한국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당신이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짧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들에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민주적 권리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운동의 자유 등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위한 노력들이 부재합니다. 이를 통해 계급의식이 강화되고 경제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자본가들의 착취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부가 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부활을 요구하는 야당대표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정치가 완전히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당신 국

29)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30) 『김대중 자서전』 1, p. 569.

31)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가의 나치 치하에 있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sup>32)</sup> 이 서한에서 보듯 김대중은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유가 자유를 위한 것인데, 독재 정권이 반공의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브란트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브란트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활동(SAP: Sozialist Arbeiter Partei)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 반공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진정한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33)</sup> 이러한 브란트에게 김대중의 이러한 상황과 편지 내용은 깊은 공감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서술해 가면서 반공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우리 민족은 현재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한국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은 극히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크게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싸울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sup>34)</sup> 김대중은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가 반공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이렇게 말하는 김대중이 브란트의 반공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표상하는 반공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잘 소통할 수 있었다.<sup>35)</sup> 여기에서 우리는 앞의 머리말에서 인용한 강

32) 위 서한.

33) 노명환,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34)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35) 노명환,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연 내용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빌리 브란트 수상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독재와 싸웠고, 공산주의와 싸웠고, 분단과 싸웠습니다.”<sup>36)</sup> 그러면서 김대중은 이 서한에서 브란트에게 민주화 및 정치 투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민주적 제도와 노동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sup>37)</sup> 여기에서 우리는 김대중의 민주화 투쟁이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임을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빌리 브란트는 김대중의 노선이 자신의 신념, 정치 노선, 즉 독일 시민당의 노선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미 이러한 측면을 확인하였기에 1978년 11월 김대중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총회로 초대하고자 했을 것이다. 김대중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초 하에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 편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실천해 온 정치 활동 및 민주화 투쟁의 여정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그의 ‘선민주 후통일’의 표어는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박정희가 ‘선건설 후통일’을 외치면서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그의 대응이고 비전이었다. 김대중은 브란트가 서독의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동독 및 동유럽과 접촉하고, 화해·협력을 이루면서 분단극복을 이루고자 한 점을 명확히 파악했다.<sup>38)</sup> 동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브란트는 서독에서 ‘보다 많은

36)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37)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38) 위 서한.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mehr Demokratie wagen)'를 주창하였는데,<sup>39)</sup> 그 의미를 김대중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한국의 상황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실현하는 것은 꼭 브란트에게서 받은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유하고 추구해오던 바였다.<sup>40)</sup> 다만 브란트가 실천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했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그의 정책 실현에서 보고 참고했다.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이미 성공한 것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동포들의 남한에 대한 매력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정권과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평화적인 소통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합니다.”<sup>41)</sup> 이렇듯,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김대중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지? 등을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서독 국민들이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듯이, 남한이 북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 정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 서한 내용이 독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한국 김대중의 햇볕정책 사이의 관계와 비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김대중은 브란트에게 전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존경하는 브란트 씨, 나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당신의 애정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대한 관심과 정신적 지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솔직

39) 위 서한.

40)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No. 30 (2012), p. 133-177.

41)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히 말씀드리면 독일 교회가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노력으로 우리와 깊은 유대관계를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독일 정부는, 특히 주한 독일 대사관은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시즘에 대항해서 싸우고 희생을 치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독일 정부와 대사관의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부가 당신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자유와 사회정의의 위해 관심과 정신적 지원을 강화시킬 것을 희망합니다.”<sup>42)</sup> 여기에서 김대중은 독일의 교회들은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독일 대사관은 그러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마 독일 대사관은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거나, 당시 대사의 성향이 한국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 독일 사민당 정부 지휘 하에 있는 주한 독일대사관이니 김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김대중은 독일 사민당의 당수인 브란트가 대사관이 태도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브란트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 왕래를 할 수 있었는지를 자문할 수 있다. 이를 알게 해주는 내용을 이 서한에서 또한 우리는 읽을 수 있다. “나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그리고 내게 답을 주시려 한다면 당신의 편지를 발신자의 이름 없이 봉투에 봉함해서 서울 괴테인스티튜트 원장이신 레흐너 박사 (Dr. Lechner) 혹은 서울 괴테인스티튜트의 마투체 (Matusche) 여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봉투 안에 그 편지를 내게 혹은 아래

---

42) 위 서한.

의 주소로 전달해 달라는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서울 도봉구 수유동 326-1 안병무교수.”<sup>43)</sup>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이 편지가 독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작성자가 안병무 교수임을 알 수 있다. 서울 주재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를 통해 편지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설명할 것인데, 독일문화원의 레흐너(Lechner) 원장이 마투스체(Matusche) 여사와 함께 브란트의 비서실과 소통하면서 김대중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안병무가 이 편지를 작성할 때, 김대중으로부터 구두로 듣고 작성했는지, 김대중이 한글로 쓴 편지를 번역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조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브란트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당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시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충직한 성원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sup>44)</sup> 이렇다면 김대중이 작성한 편지의 내용들이 브란트의 가슴을 울렸다는 것인데, 김대중의 편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브란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다. 김대중이 쓴 편지처럼 브란트가 자제한 편지를 쓴 경우는 없다. 그것은 아마 여러 종류의 업무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또는 브란트의 성격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의 편지 내용에 대해 강한 동감과 감동들을 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브란트가 김대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브란트는 김대중의 위 편지에 대한 감동의 소감을 김대중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듯이 후에 루이제 린저에게도 표했다. 브란트의 이 답장은 그의 비서인 덩겔스(Hans-Eberhard Dingels)가 초안을 작성하고 브란트가 가필 정정하여 완성되었다. 이 편지의 수정 과정이

43) 위 서한.

44) 빌리 브란트가 앞의 김대중 편지(1979년 10월 20일의)에 대해 1979년 11월 20일에 보낸 답장.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수차례 이루어졌다. ‘빌리 브란트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초안들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11월 16일, 11월 20일에 이러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브란트가 김대중의 편지를 깊은 감동과 함께 진지하게 수용하고, 깊은 마음의 정성과 정확성을 담은 답장을 보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브란트는 이 답장에서 김대중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 투쟁의 가치를,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sup>45)</sup> 필자가 보기에 브란트의 이 서한의 내용은 그가 한국의 상황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반면교사로 배우고 있음을 또한 나타내 준다. 즉, 김대중 과의 서신 왕래에서 브란트는 분단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반추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서한에서 효과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간절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또한 동시에 가능한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김대중을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의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상황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기여란 극히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기꺼이 다시금 그곳의 상황 변화를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를 숙고하고자 합니다.”<sup>46)</sup> 이 서한에서 우리는 김대중을 위한 브란트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이 요청한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도 약속했다. “당신이 말씀해준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의 태도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할 것임을 당신께 확인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sup>47)</sup>

---

45) 위 서한.

46) 위 서한.

47) 위 서한.

김대중이 위의 편지를 쓰고 난지 6일 후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되는 10·26 사건이 일어났다. 김대중의 이 편지에 대한 브란트의 답장은 10·26 사건 이후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 후 브란트는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였다. 1년 전 김대중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초청하려 했던 점을 상기하면, 그러한 정치노선을 공유하는 김대중의 집권을 가능하다면 지원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전개가 이루어졌다. 브란트의 지지자이며 동지이고 재독 한인 음악가 윤이상의 친구인 린저(Luise Rinser)는 당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인 브란트에게 서한을 보내어 윤이상을 중심으로 서독에서 한국 사회민주당을 창건하도록 돕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브란트는 답장을 통해 이를 완곡히 반대하고 국내 민주세력 중심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질서가 잡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그의 언급은 김대중을 지지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실제로 그는 린저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김대중을 언급하면서 김대중의 편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브란트가 1년 전 김대중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총회에 초대하려 했던 측면에서 볼 때, 독일에서 새로 사민당을 조직할 필요 없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면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린저가 브란트에게 보낸 편지를 상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당신이 이 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긴급히 요청합니다. 당신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정통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위치에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박정희의 죽음을 통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좋은 혹은 나쁜 상황, 즉 민주화 혹은 군부 독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이 결정적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아오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박정희의 죽음 이전에 드러났듯이, 남한 사회의 국민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의식이 충만합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추구하는 방식의 사회화에도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명 한국인들은 첫걸음으로 외국에서 사회민주당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당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빌리 당신은 포르투갈이 사회민주주의 사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남한을 도와주십시오. 가능한 긴급히 윤이상씨를 만나십시오. 그가 구체적인 제안들을 할 것입니다. 오랜 동안 나는 윤이상씨를 잘 압니다. 그가 공산주의자거나,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을 위해 일했다면 내가 잘 파악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SPD)안에 부주의하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발생한 편견을 공유하는 일부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는 당신도 이들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고데스베르크에서 개최된 남한위원회 회의에서 당신이 윤이상씨와 거리를 둔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편지를 기억하시지요.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항상 투명하게 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윤이상씨와 대화를 가지십시오. 급히 서두르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사이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관심사입니다.”<sup>48)</sup>

48) 루이제 린저가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1월 12일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3, Laufzeit: 01.1979 - 12. 1979. 린저가 서독에서 마리오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포르투갈의 사회당이 창당된 것을 언급하면서 윤이상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민주당을 창설하는데 돕자는 제안은 대단히 흥미롭다. 김대중과 마리오 수아레스는 후에 서로 비슷한 삶과 정치 여정을 발견하고 깊은 동지애를 가졌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 수아레스 포르투갈 대통령은 1980년 김대중이 사형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 구명 운동에 나섰다. 케임브리지 체류시기인 1993년에 김대중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수아레스를 만났다. 김대중은 당시 소감을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지도자 회의에도 참석했다. 24개국 지도자들과 복지·환경·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특히 12차레나 투옥을 당하고 프랑스에 망명을 가야 했던 마리오 수아레스 (Mario Suares) 포르투

이 서한에 의하면 민주화 투쟁을 하던 재독 일부 한인들이 윤이상을 중심으로 사회민주당을 창당하여 당시 브란트가 의장으로 있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것이 린저 개인의 관점과 견해인지, 당시 상황이 확실히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린저는 브란트가 동백림 사건의 경험과 함께 윤이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본(Bonn)의 고데스베르크(Godesberg)에서 남한위원회(Südkorea-Komitee)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 브란트와 린저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루이제 린저가 말한 사회민주당 창당 움직임이 이 남한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 같다. 이 남한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당시의 활동에 대해 연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

브란트는 답장을 통해 윤이상에 대한 브란트의 이해가 린저가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사회 내부의 민주화 운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란트는 한국 사회 내부의 민주화 세력에게 결정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 외부 세력은 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달리 말해 외부에서 결정을 하여 내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측면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이 보낸 감동스러운 편지를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내부 민주주의 세력의 중심으로 김대중을 제시했던 것이다. 브

---

갈 대통령과는 따로 만나 요담을 나누었다. 그와 나의 삶이 많이 닮아 있었기에 오래 전에 만나 친분을 쌓은 것처럼 느껴졌다.” 『김대중 자서전 1』, 623쪽. 포르투갈 사회당의 설립자인 수아레스 전 대통령은 지난 수십여년 간 포르투갈 정치에 몸담으며 외무장관과 총리, 대통령을 역임했다. 1924년 12월7일 리스본에서 태어난 그는 36년간 독재를 이어온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12차례 옥고를 치렀다. 이후 살라자르 총리의 탄압을 피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지를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했던 수아레스 전 대통령은 1973년 독일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독일 사회민주당 등의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 사회당을 창당했으며, 창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당 지도자로 선출됐다. 1973년은 마리오 수아레스와 빌리 브란트,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 각각의 관계에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이 해에 브란트는 마리오 수아레스를 도와 서독에서 포르투갈 사회당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동경에서 납치된 김대중을 도와 구명하고자 했다.



란트는 린저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1979년 11월 12일에 보낸 편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편지에 대해 즉시 답을 보냅니다. 나는 남한에서 전임 대통령의 죽음이 일정 측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당신의 상황 판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남한 사회 스스로 어떤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김대중씨가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국가적 상황과 자신 개인의 상황을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한의 민주 세력 자신들이 어떠한 형태로 외국에서의 정치적 활동들이 조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sup>49)</sup>

그렇다고 그가 윤이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까지 내부 민주주의의 운동 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연히 망명중인 한국 인사들이 정당을 창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에 따르면 사회 내부의 민주 세력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윤이상씨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윤이상씨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서인 덩겔스(Hans-Eberhard Dingels)에게 윤이상씨와 대화를 가지도록 지시했습니다.”<sup>50)</sup> 독일내의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존중하면서도 김대중의 리더십에 대한 강력하고 한결같은 브란트의 확신과 지원 그리고 연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브란트의 서신은 결국 그의 열성 지지자이고 동지인 루이제 린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까지 그가 김대중 지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49) 브란트가 린저의 11월 12일 편지에 대해 11월 27일 보낸 답장.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3, Laufzeit: 01.1979 - 12. 1979.

50) 위 서한.

### III. 전두환의 신군부와 정권에 의한 김대중 박해와 (1980-1987.6)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사이의 서신 왕래

브란트는 김대중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로 구금되어 조사받고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적극적인 구명 운동에 나섰다. 그는 1980년 7월 4일 당시 한국의 최규하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 격하게 항의했다. “나와 나의 친구들은 김대중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얻게 된 위독한 부상과 함께 군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설명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나라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김대중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요구합니다.”<sup>51)</sup> 브란트는 여러 정보 네트워크 중 특히 독일 문화원을 통해 김대중 관련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었다. 독일에 소재하는 독일 문화원 본부의 이젠베르크(Veronika Isenberg)가 한국 독일문화원의 레흐너 (Lechner) 소장의 소식을 브란트에게 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위의 서신에서 브란트가 김대중의 군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접하게 되었을 확률이 크다. 이젠베르크는 1980년 7월 16일 다음과 같은 레흐너 소장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의 괴테인스티튜트 원장인 레흐너 씨가 사민당 임원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그는 올해 초 빌리 브란트의 편지를 김대중에게 직접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로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임 주한 독일 대사에게 큰 위험 없이 가능할 때 김대중을 방문하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신임대사는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고향에서 휴가를 보낸 다음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휴가중입니다.”<sup>52)</sup> 앞 장에서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답장을 보낼 때

51) 『김대중 자서전』 1, p. 432.

52) 빌리 브란트가 대한민국 대통령 최규하에게 7월 4일 보낸 전문. WBA.,

는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의 소장 레흐너 씨나 마추체 여사를 통해 자신이나 안병무교수에게 보내달라고 했음을 언급했다. 이젠베르크의 이 보고서는 빌리 브란트가 김대중의 안내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김대중의 부탁대로 브란트가 독일 정부를 통해 주한 독일 대사에게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에 협력하도록 모종의 메시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젠베르크의 이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전임 대사 자신이 김대중의 상황에 대해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임 대사도 신중함과 소극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독일 정부의 메시지와 독일문화원 원장의 권고를 받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젠베르크는 독일문화원 원장의 소식과 의견을 통해 김대중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전해 주고 있다. “김대중은 현재 한 군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합니다. 그가 다시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역죄에 대한 그의 재판은 곧 이루어 질 것이고 그의 동료들은 재판이 늦어도 7주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가택연금 하에 있습니다.”<sup>53)</sup> 이젠베르크가 전해주는 독일문화원 원장인 레흐너의 판단과 소식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서 권력은 군부에 있었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상황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했다. “실질적인 권력은 군부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외교관들도 최소한의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부는 경제적 조치 혹은 미국의 압력만을 의식할 따름입니다.”<sup>54)</sup> 이러한 맥락에서 레흐너 소장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김대중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군에 압력을 가하도록 미국을 다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을 또한 이젠베르크가 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

---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53) 이젠베르크(Veronika Isenberg)가 브란트에게 보낸 보고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54) 위 문서.

황은 50%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매우 안 좋습니다. 레흐너 씨는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인 김대중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민당에게 다시 한번 미국을 통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sup>55)</sup> ‘다시 한번’ 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서한은 이전에도 이미 브란트와 사민당이 미국에 이러한 권고를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다음에 보듯이 브란트는 그 후인 같은 해 9월 17일 김대중이 사형 언도를 받는 날에도 미국에 이러한 내용을 촉구했다. 1980년 7월 16일 이첸베르크는 브란트의 7월 4일자 서한에 대한 한국의 박동진 외무부 장관의 답이 들어 있는 전보를 전달하였다. 이 전문에서 박 장관은 한국에서 모든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브란트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sup>56)</sup>

각 계에서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인 빌리 브란트에게 김대중 구명운동을 위해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빌리 브란트는 김대중 구명운동을 수행한 한 개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한 구심점이 되어 주었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당의 당수 아수카타(Ichio Asukata)도 김대중 구명을 위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사무총장 칼슨(Bernt Carlsson)을 참조로 의장 빌리 브란트에게 1980년 7월 4일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오슬로의 업무 회의(Bureau Meeting)에 참여한 한국인들에게 당신이 보여준 친절한 지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대표들이 이와 같은 한국인들이 남한(South Korea)의 군사 정부에 대항해 전개하는 투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 17일 체포된 김대중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남한(South Korea)의 계엄사령부는 7월 4일 투옥되어 있는 김대중과 다른 36명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인해 군사법정에서 재판

55) 위 문서.

56) 위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박동진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 독일 사민당 당수이며, 사회주의 의장인 빌리 브란트에게 보낸 편지.

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사법정이 유죄선고를 하게 되면, 김대중은 폭동 내란 음모 관련 형법을 포함 여러 법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 선동 시도 (내란 음모) 관련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 과정을 멈추게 하려는 책략입니다. 우리 당은 한국의 군사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도 한국의 계엄사령부의 조치들에 강력히 항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김대중을 위해 세계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sup>57)</sup>

브란트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내에서도 김대중 구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대중의 자서전에 따르면, “서독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의장은 총회에서 ‘김대중 구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sup>58)</sup> 이 총회는 1980년 11월 12~14일 기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것이었다. 브란트는 이 때에 의장으로서 행하는 개회 연설 전에 ‘김대중이 죽어서는 안 된다(Kim Dae Jung must not die!)’를 열 번이나 절규하듯 외칠 정도로 구명 운동을 열렬히 전개했다.<sup>59)</sup> 이는 김대중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열정을 절절히 보여주는 감정의 정점이었다. 이 결과 SI의 멤버들이 그의 구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전 수상 크라이스키 <sup>60)</sup>,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스웨덴의 팔메 수상, 포르투갈의 마리오 수아레즈 수상이 구명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김

57) 일본 사회당 당수 아수카타(Ichio Asukata)가 1980년 7월 4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 빌리 브란트에게 보낸 전문.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58) 『김대중 자서전』 1, p. 432.

59) 이 사실은 ‘사회주의 청년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of Socialist Youth)’의 부의장으로서 당시 총회에 참여했던 코스타리카의 정치가 몽게 (1947-)의 저작에서 소개되고 있다. Rolando Araya Monge, *Testigo de excepcion*, San Jose (Costa Rica) 2014, p. 331.

60) 김대중은 1981년 11월 3일 수감 중에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수상했다. 브루노 크라이스키는 브란트의 망명 저항투쟁 동지이며 친구다.

대중 자서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전 수상 크라이스키(Burno Kreisky)는 그가 제정한 평화상을 옥중의 나에게 수여했다.”<sup>61)</sup> 앞의 내용에서처럼 일본 사회당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멤버는 아니지만 서독의 바이체커(Rihard von Weizäcker) 대통령은 개별로 적극적인 구명 운동을 펼쳤다.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부 장관은 ‘유럽공동체의 모든 가맹국이 한국 정부에 항의할 것을 제안’할 정도로 외교적 차원에서 구명 운동을 펼쳤다.<sup>62)</sup>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미국 정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일본 정부와 일본 최대 노조 총평도 가세했다. 해외 각 지역의 교포 민주화 인사들이 각종 집회와 시위 및 언론 활동을 통해 구명 운동을 전개했다.<sup>63)</sup>

사민당의 직원 라이츠(Rüdiger Reitz)가 사민당의 주요 요직의 고위 인사들인 비스넵스키(Hans-Jürgen Wisniewsky), 베너(Herbert Wehner), 바르(Egon Bahr)를 참조로 하여 브란트에게 1980년 12월 18일에 보낸 메모에 의하면, 독일개신교 총회(EDK-Synode)가 김대중 구명을 위해 한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12월 23일 최고 군사재판이 열리고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본의 개신교 총회도 그렇게 내다보았다. 세계의 개신교 교계는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의 주한 독일문화원 레흐너 소장의 입장과 같다. 이들은 브란트가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구명을 언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64)</sup>

브란트의 비서인 뉅겔스가 1980년 12월 16일 브란트에게 보낸 보고서에

61) 『김대중 자서전』 1, p. 433.

62) 『김대중 자서전』 1, p. 432-433, 426,

63) 『김대중 자서전』 1, p. 432-433.

64) 라이츠(Rüdiger Reitz)가 브란트에게 보낸 메모.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의하면 사민당 하의 서독 정부, 브란트와 사민당 그리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김대중을 독일로 망명하도록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김대중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국 정부와 협상을 했다. 한국 정부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영국 주재 한국 대사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칼슨(Bernt Carlsson)을 만나 회담했고, 한국 정부는 유럽의 나라, 특히 독일이 김대중의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 지 물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김대중이 한국정부에 반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보장해줄 수 있는 지를 타진했다. 덩겔스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칼슨 (Bernt Carlsson)이 방금 내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해 주었어요.

1. 칼슨이 런던 주재 한국 대사와 대담을 했는데, 김대중의 위협에 처한 운명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갖는 깊은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합니다.

2. 이 대담 동안 한국 대사가 칼슨에게 이해를 표방하고 김대중이 석방되는 경우 그를 망명자로 받아들일 국가가 있겠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김대중이 자신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김대중을 한국정부에 반대하는 상징적 존재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칼슨은 김대중을 구하기 위해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받아줄 나라들이 있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보장을 확약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칼슨은 그 한국 대사와 다시 만나기 전에 나를 통해 그렇게 말해도 좋다는 당신의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나 역시도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의지적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김대중이란 인물과 관련한 모든 예기치 못한 어떠한 형태의 개입으로 부터도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 기억으로 망명 국에 관한한 우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에게 김대중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제 나는 한국 공사(Gesandten)와 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공사는 자신의 예측에 의하면 김대중과 관련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히 그리고 우리가 수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몇 정치적 수감자들의 석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한국 공사는 당신이 아시아 여행의 일환으로 한국에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김대중이 무사하게 되면 당신의 한국방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도 이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sup>65)</sup>

딩겔스가 한국 공사를 8월 25일에 만났다. 한국 공사는 한국 내의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국가로서 서방과의 좋은 관계를 희망했다고 딩겔스가 브란트에게 전했다. 딩겔스는 한국 공사가 현재의 모든 일이 이미 다 지난 일처럼 서방과의 좋은 관계를 말한다고 비판을 곁들이면서 전했다.

독일 내에서 프로이텐베르크(Freudenberg) 오스나브뤼크 대학 교수, 그의 친구인 조남홍, 라인(Albrecht Lein) 박사가 구명운동을 벌이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를 1980년 9월 15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이며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인 빌리 브란트에게 전달했다. 그들이 브란트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을 여기에 옮긴다. “이 편지에 우리는 당신에게 이미 알려진 공개 서한에 대한 3700명의 서명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그동안의 김대중과 다른 구속자들의 구명을 위한 노력에

65) 딩겔스가 브란트에게 보낸 메모.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도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재판은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당신 역시 이 재판을 세계의 여론에 주목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평상시처럼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신문인 코리아 헤럴드를 통해 이러한 보도를 확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들의 복사 본을 당신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동봉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회의 사회주의 당파가 ‘한국 의제’를 발의한다고 들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를 넘어서 김대중과 다른 모든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명수집이 끝난 것을 계기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다음 회기에서 한국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야당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협의를 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협의를 하겠다는 공지를 지금 적시에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범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개 서한에 대한 서명자들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누구보다도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 그리고 선교단체들의 직원들이 당신과 당신의 노력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 서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일부는 어떠한 사회민주주의 정치가에게 이제껏 어떠한 편지도 쓴 일이 없는 분들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sup>66)</sup>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하여 각 계의 인사들이 김대중 구명 운동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고, 김대중과 동지들의 운명에 대해 극히 절박한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활동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았음도 알 수 있다.

66) 프로이텐베르크와 조남홍이 브란트에게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이에 대해 브란트는 심심한 감사를 표했다.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다음 국제 사회주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했다. 프로이텐베르크와 깊은 친구관계인 재독 음악가 윤이상도 김대중 구명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들과 친구관계였던 루이제 린저도 동참했다.

이들의 편지와 서명 명부가 브란트에게 전달된 지 이틀 후인 1980년 9월 17일 한국의 군사법원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브란트는 당시 한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급히 전보를 보내고 사민당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사민당은 당수 빌리 브란트가 아래의 전문을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보냈음을 알렸다: “놀라운 충격과 함께 나는 오늘 군사법정이 김대중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의 조국의 사회적 진보와 인권의 존중을 위해 수행한 한 애국자의 노력이 이러한 판결에 직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이 판결을 수정해 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이 판결을 집행하게 되면, 인류의 국제 공동체에서 당신의 국가 위상은 커다란 훼손을 입게 될 것입니다.”<sup>67)</sup> 그러면서 사민당은 이 기자회견에서 ‘사민당 당수가 동시에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김대중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힘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한국의 최고 군사법원에 의해 김대중의 사형이 확정된 후 브란트는 1980년 11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경고성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참으로 커다란 우려와 함께 두 번째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고 형 집행을 막도록 긴급히 요청합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

67) 빌리 브란트가 1980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보낸 전문을 인용한 사민당 기자회견 내용.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고, 당신의 나라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sup>68)</sup> 브란트는 이렇게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제적인 구명 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쳤다. 그는 미국 정부를 비롯 각국 주요 정부에 김대중 구명 활동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그가 의장으로 있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통해, 특히 1980년 11월 마드리드 총회에서 적극적인 구명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김대중이 필히 사형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의 결과로서 그의 형량이 결국 무기징역으로, 그 다음에는 20년으로 감형되었다. 1982년 초에 신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의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 김대중이 이렇게 사형을 면하고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망명하였을 때에도 브란트는 여러 서신들을 통해 김대중을 격려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계속 노력했다. 김대중이 미국에서 한국 인권문제연구소(Korean Institute for Human Rights)를 창설하여 활동하였는데 브란트는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브란트는 김대중의 유럽방문 뜻을 알고 서독으로 초청하기 위해 서독 개신교연합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전두환 정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서신 왕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그리고 통일정책 등에 관해 서로 여러 의견 교환을 하였다.

미국에서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보낸 1984년 8월 3일자 편지를 보면 유럽을 언제 방문하고 싶고, 유럽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유럽에서 만나고 싶은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지속해 오는 과정에 대한 짧은 설명이 들어 있다. 연말에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도 담겨있다. 무엇보다도 브란트를 직접 만나게 되는 기쁨과 설레임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분단 극복 정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잘 드러나 있

68) 빌리 브란트가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1980년 11월 4일 보낸 전문.

다. “당신의 나라를 방문한 이후에 나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스웨덴의 팔메 수상, 오스트리아의 전 수상 브루노 크라이스키를 만나고 싶습니다. 1982년 미국으로 온 이후 미테랑 대통령과 서신 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작년 사회당 전당 대회 때 프랑스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여권이 미국내에서만 여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메 수상과도 일정 시점부터 서신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그가 하버드대학교에 왔을 때 점심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유럽 방문 계획에 대해 말했고 그는 스웨덴을 방문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나는 1981년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수상한 후 그와 서신 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내가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 경우 그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고위 인사들과 접촉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sup>69)</sup>

그런데 김대중은 결국 유럽여행을 포기하고 모든 위협과 위협을 무릅쓰고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김대중의 유럽 여행을 반대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차단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1월 4일 그는 브란트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유럽을 방문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초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초청장들은 유럽의 지도자들, 보쿰대학교 총장,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고위 유명 정치 지도자, 학계 인사,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 허가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귀국하면 다시 투옥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투옥 협박에도 불구하고 1월 말경에 귀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sup>70)</sup> 김대중은 이 편지에서 왜 그가 여러 위협과 여러

69)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84년 8월 3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36, Laufzeit: 01.1984 - 12. 1984.

70)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85년 1월 4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4,

움이 예견되는 데도 귀국을 하려 하는지를 자세히 기술했다. “나는 한국으로의 귀국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시련과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셋째, 오랜 기간의 독재와 사회 부조리,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독재 지원 때문에 학생들, 노동자, 지식인 중에 극단화 되어가는 인사들 수가 늘고 있어서, 이들을 위로하고 온건하게 만들기 위해.”<sup>71)</sup>

이와 같은 뜻에서 예견되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하려는 김대중의 편지를 보면서 브란트는 깊은 감동을 받고 20일 후 1월 24일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1월 4일자 당신의 편지 매우 감사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개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기로 한 당신의 결심을 접하면서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료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환경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서 대단히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깊이 고심하면서 그러한 결심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심심한 존경을 받아주십시오.”<sup>72)</sup> 브란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이 되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동료들은 항상 당신 그리고 당신의 이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sup>73)</sup>

김대중은 1985년 2월 6일 미국에서의 777일의 2차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귀국 후 가택연금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펴나가고,

Signatur (alt): 137, Laufzeit: 01.1985 - 12. 1985.

71) 위 서한.

72) 1985년 1월 24일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보낸 답장.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37, Laufzeit: 01.1985 - 12. 1985.

73) 위 서한.

198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정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7년 1월 브란트는 자신을 포함 사민당 의원 73명의 당원들과 함께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이를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서울 주재 독일 통신 기자가 1월 30일 밤 전화를 해서 독일 사민당 의원 73명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나를 추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권 투쟁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추천 이유로 들었다.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다음 날 조간 신문 귀퉁이에 기사 몇 줄이 났는데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sup>74)</sup> 이 해의 전반기 그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격렬한 민주화 운동의 대세에 동참하였다. 1987년의 6월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권의 항복 표시와 동시에 돌파 전략으로서 제시된 노태우의 6·29 선언과 함께 김대중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 IV. 1987년 6월 항쟁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서신 왕래

1987년 6·29 선언 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였다. 민주 진영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자행했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야당 분열에는 김대중에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이 평민당을 만들어 나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만, 야당의 이분열과 그에 따른 민주 진영의 대통령 선출 실패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절망적으로 낙담했다. 김대중에 대해 감당키 어려운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이 당시 브란트가 한국의 상황과 이러한 김

74) 『김대중 자서전』 1, p. 510.

대중의 행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여 관련 기록을 찾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서신 기록은 물론 어떤 다른 형태의 기록도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다. 브란트도 1987년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민당 소속이 아닌 그리스 출신의 젊은 여성 마티오폴로우스(Mathiopolous)를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였는데, 당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 ‘노망의 나이’에 이르렀다는 비난들까지 제기되었다. 그는 사민당 당수직을 사임하였다.<sup>75)</sup> 그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1987년 후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힘든 시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브란트의 상황에 대해서 김대중은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여력이 없었다. 김대중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브란트도 김대중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이 약진하여 제1 야당이 되었다. 이때 브란트는 축하 편지를 보냈다.<sup>76)</sup>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보면서 브란트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김대중에게 어떠한 서한을 보냈는지, 등을 찾았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시대, 즉 5공에 대한 청산 작업이 1989년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제1 야당 당수인 김대중은 국회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해 김대중은 브란트에게 자신의 평화민주당 당원 대표들이 그 해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고, 브란트는 5월 24일 서한을 보내어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10월에 한국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비서가 자세한 연락을 보낼 것이라 했다.<sup>77)</sup> 이렇게 두 사람 사이

75) Willy Brandt,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1989; Hélène, Miard-Delacroix, *Willy Brandt. Life of a Statesman*, London/New York (I.B. Tauris) 2016, pp. 184-185.

76)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88년 4월 24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77)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89년 5월 24일에 보낸 편지. WBA.,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에 계속 서한이 이어졌다. 서신 왕래와 실제적인 교류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989년 10월 23일 시사저널 박권상 대표의 초청으로 브란트가 한국을 방문했다.<sup>78)</sup> 제1 야당 당수로서 김대중은 공항에서 브란트를 영접했다. 김대중은 처음으로 브란트를 직접 보고 악수를 할 수 있었다. 26일에는 워커힐로 브란트를 초청하여 칵테일 파티를 개최했다. 그동안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sup>79)</sup> 특히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국의 통일 과제 그리고 지역평화 및 세계평화와 번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의 대화를 통해 브란트는 독일과 다른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독일 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민주화와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해 온 김대중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동독에서

78) 1989년 10월 19일자의 브란트의 한국 방문 계획 (10월 23-31일) 문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79) 1989년 10월 19일자의 브란트의 한국 방문 계획 (10월 23-31일) 문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김대중 자서전에서는 이 만찬 날자가 11월 9일로 되어 있다. “나는 11월 9일 그를 워커힐로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 동서독의 통일 전망에 대해서 문자 그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답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전갈이 왔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토록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정치인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통일은 도적처럼 들이 닥쳤다. 그는 부랴 부랴 독일로 돌아갔다.” 『김대중 자서전』 1, 568-569. 이 오류에 대해 필자는 ‘10월 26일 당시 동독 상황이, 베를린 장벽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그에 대한 환답이 있었을 텐데, 그 때에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전갈이 독일에서 왔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로 기억되고, 그러다 보니 후에 장벽이 붕괴된 11월 9일을 만찬 날로 기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대학의 강연에서는 정확히 10월 26일로 기억하여 강연 원고를 작성하고 말했다. “1989년 10월 26일 저는 브란트 수상을 한국에 초청하여 만찬 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만찬장에 전해졌습니다. 브란트 수상께서는 예상외의 빠른 사태에 당혹해 하면서 바로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만찬 연 날자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해서는 앞에서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동독의 심각한 사태에 대한 풍자적인 은유적 표현일 수 있었다. 당시 동독에서 동독 정권에 시민들의 항의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급히 귀국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기억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반정부 시위의 큰 변화가 전개 되고 있어서 독일의 통일 문제가 매우 생동감 있게 논의 되었다. 동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가두시위가 세차게 번져 나갔다.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대사관을 거쳐 동독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 갔다. 베를린 장벽이 흔들거렸다. 브란트는 독일로 귀국하여 그 스스로 동방정책을 통해 기초를 다졌던 독일통일을 생전에 목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할 때 세워졌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990년 6월 30일 양 독일은 “경제, 화폐, 재정 통합”을 이루었다. 김대중이 같은 해 7월 2일에 브란트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에 대해 축하했다.<sup>80)</sup> 1990년 8월 28일에서 9월 4일까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초청으로 김대중은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다.<sup>81)</sup> 그러나 김대중은 당시 한국의 긴박한 사정으로 갈 수가 없었다. 김대중이 앞의 7월 2일 브란트에게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8월말 독일에서 보자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 직후 갈 수 없음을 알려야 했다. 한국의 여러 정치적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갔다. 1989년 문익환, 황석영, 임수경의 방북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공안정국이 대두되었는데, 평민당 의원 서경원의 밀입북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김대중과 평민당은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sup>82)</sup> 브란트는 1990년 8월 31일 김대중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편지 내용들에 대해 감사하고 ‘경제, 화폐, 재정 통합’에 기초해서 곧 10월 3일 완전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편지에서 브란트는 김대중이 독일에 올 수 없음을 몹시 아쉬워했다.<sup>83)</sup>

80)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0년 7월 2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81) 외무부의 쇤펠더(Schönfelder)가 브란트에게 1990년 8월 8일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82) 『김대중 자서전』 1, pp. 556-561.

83) 빌리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90년 8월 31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독일 통일이 실현되었다. 이날 김대중은 빌리 브란트에게 축전을 보내 그 꿈같은 독일 통일을 축하했다.<sup>84)</sup> 김대중은 브란트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독일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었고, 이에 기반한 동방정책을 통해 독일이 통일되도록 하였다고 축하했다. 즉, 김대중은 독일통일의 가장 큰 동인으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꼽았다.<sup>85)</sup> 김대중은 브란트 정권하에서 추진된 동서 교류·협력·화해 정책과 동시에 서독의 민주사회, 튼튼한 경제, 우수한 사회복지제도가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향하도록 하는 원인이었다고 보았다.<sup>86)</sup>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독일이 부럽다는 점을 밝히고, 독일로부터 이러한 점을 많이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sup>87)</sup>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추진한 동방정책의 열매로 독일이 통일된 날에 독일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햇볕정책을 추후에 실시한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이와 같은 축전을 보내 축하한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김대중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초청으로 1991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독일을 방문했다. 이 때 독일을 방문하기 전에 김대중은 러시아로 가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열친을 만나고, 모스크바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였다. 냉전의 시대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향후 세계의 미래에 대해, 한반도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84)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보낸 축전.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85) Meung-Hoan Noh, "The Impacts of the "*Berliner Mauerfall*"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on the Tasks of Korean Unification: Focused on the Northern Policy of Roh Tae-woo and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jung", 『역사문화연구』, 제, 35집 (2010. 2. 28) pp. 587-588.

86) 채구복,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 『한국사회학』 제 30집 (겨울호, 1996), pp. 841-871, p. 863.

87)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보낸 축전.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의 운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다음 그는 뉴욕으로 가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맞추어 실시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유엔 총회에 참가하였다. 그 후 폴란드로 가서 대통령 바웬사(Lech Walesa)를 만났다.<sup>88)</sup> 9월 28일 베를린에 도착하였는데, 일요일이라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쉬었다. 베를린 장벽 방문 등 분단의 현장 답사를 하였다. 9월 29일부터 본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10월 2일 본에서 출발하여 3일에는 뮌헨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독일 거주 교포들을 만났다. 이러한 여행 일정들이 차후의 서신 왕래 내용들과 행간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김대중은 10월 2일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건물의 정치 클럽(Politischer Club) 홀에서 빌리 브란트를 만나 독일 통일과 한국을 위한 교훈 등 여러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두 사람은 특별히 흡수통합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담에 대해 독일 측이 작성한 회의록이 당시 논의 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그 회의록의 내용들이 추후 이루어진 두 사람 사이의 서신 왕래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고, 서신 내용들의 행간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여기에 옮긴다. “인사말에서 김대중은 2년전 빌리 브란트의 한국 방문을 떠올렸다. 이번 자신의 독일 방문의 주요 목적을 3가지로 요약했다.

- 자신이 박해 받던 시기 빌리 브란트의 지원에 대한 감사
- 동유럽의, 특히 소련에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정보 습득
- 독일의 통일과 한국에 주는 교훈

빌리 브란트는 통일과정의 외적 요소보다 내적 측면들이 더 힘들었다고 평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신이 한국에 가 있을 때 이미 예시되었다. 두 독일 사이의 조약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통일의 속도를 온전히 동독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독으

88) 『김대중 자서전』 1, pp. 578-580; 빌리 브란트의 국제업무 담당 비서 위게(Wolfgang Weege)가 보내 브란트 사무실에 1991년 9월 3일 도착한 보고서.

로부터의 압력을 서독은 받아들여야 했다. 이 결과 통일의 내부 과정이 더 어렵고 고비용으로 진행되었다. 동독에서의 도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브란트는 양 독일 지역의 생활수준의 개략적인 균형은 1990년대 말 정도에 가능해질 거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이 때쯤이면 기본적으로 동독 지역이 첨단 투자에 힘입어 서독 지역 보다 현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사람들의 ‘머리 속의 분단’을 꼽았다. 지난 40년 동안 생성된 이질감이 여러 측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독 지역의 사람들은 통일의 주된 부담을 자신들이 졌다고 생각하고, 서독 지역의 사람들은 동독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불평했다.

김대중은 ‘머리 속의 분단’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 맥락에서 김대중은 분단 속에서도 동서독 사이의 사람과 정보의 교환이 남북한 사이보다 훨씬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는 보다 더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통일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브란트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란트는 남북 사이에 실질적인 분야에서 합의를 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언했다. 브란트는 독일의 경험을 볼 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만이 통일 과정의 피할 수 없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진행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브란트의 질문에 김대중은 두 개의 한국 국가가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19년 전부터 김대중이 주장해 온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전 정부들로부터 친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음을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환영한 이 유엔 동시 가입에서 2가지의 근본적인 장점을 보았다.

- 접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서로 간의 협력 가능성을 강화함.
- 두개의 한국이 동시에 유엔헌장을 존중함으로써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 (170만의 군대)를 해소해 갈 수 있음.

김대중은 북한이 이미 IAEA 조사관들의 입국에 동의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이 불확실성 속에서 수시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sup>89)</sup>

이 당시의 대답에 대해 김대중은 2009년의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는 세계의 현실에 대한 의견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 통일로부터 한국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저에게 ‘우리는 동독으로부터 일어난 불의의 사태로 인해서 조속한 흡수통일을 했지만 한국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시오’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은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엄청난 후유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sup>90)</sup>

김대중은 귀국 후 1991년 11월 5일에 브란트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하고 말했다. “독일에서의 대화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통일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이 유럽과 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sup>91)</sup> 앞의 회의록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편지에서 김대중은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해 갈 것입니다.”<sup>92)</sup>

그의 평민당이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89)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1991년 10월 2일 대답에 대한 회의록.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90)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91) 김대중이 1991년 11월 5일 브란트에게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92) 위 서한.

농부, 어부, 공장 노동자, 도시 빈민, 그리고 그 외의 소외 계층 같은 보통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편지를 “나는 미래에도 당신의 현명한 조언들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sup>93)</sup>로 끝맺고 있다.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약진에 대해 브란트가 축하의 전보를 보냈다.<sup>94)</sup> 이 민주당은 평민당과 민주당이 이 국회의원 선거 얼마 전에 합당한 것이었다. 같은 해 5월 27일에는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서신을 보내 브란트의 와병을 염려하며 문안하고, 그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을 알렸다.<sup>95)</sup> 그런데 김대중에게 그렇게 많은 힘과 꿈을 주었던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를 위한 평화의 정치가 빌리 브란트는 1992년 10월 8일 영면하였다. 김대중은 1992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준비로 장례식에 참여 못하고, 아내와 둘째 아들을 보내 조문하였다. 그의 슬픔이 어땠을지는 그동안의 편지 왕래 속에 나타나는 김대중의 글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서신 왕래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

1992년 말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다시 실패하였다.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머물 시기에 김대중 부부는 브란트 수상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 때의 심경을 2009년의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93년 2월 제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브란트 수상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 생애에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던 위대한 친구를 회상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브란트 수상을 생각하면 그리운 심정이 사무칩니다.”<sup>96)</sup> 그동안 주고받은 서한들을 볼 때, 이 회고와 심경은 과장된 것이 아니고 절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3) 위 서한.

94)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92년 3월 31일 보낸 축하 전문.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95)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2년 5월 27일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96)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김대중은 1998년 대통령이 되었고 동방정책과 유사한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 에어푸르트 (Erfurt)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1971년 빌리 브란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처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김대중은 그해 12월 노벨평화상을<sup>97)</sup> 수상하였다. 김대중은 2009년 8월 18일에 타계하였다.

## V. 맺음말

1973년부터 1992년까지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 사이의 교류와 서신 왕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많은 보완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79년 10·26 사태 직후 서독에서 추진되었던 한국의 사회민주당 창당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서 루이제 린저의 역할은 새롭게 들어난 사실이다. 1980년 김대중의 사형 집행이 예견되던 시기에 브란트의 사람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되었던 ‘김대중을 유럽으로 망명 시키는’ 내용도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사안이었다.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관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을 제공해주었다. 그들 각자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생동감 있게 느껴볼 수 있었다. 1987년 6·10 항쟁과 6·29 선언이 있기까지는 두 사람의 서신 왕래의 내용들은 김대중의 지원 요청 그리고 브란트의 구명 운동과 지원, 격려와 위로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이후에는 독일 통일 과정과 이것이 한국을 위해 주는 시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두 사람은 구체적인 논의들을 이어 갔다. 편지를 통해 논의하는 것과 실제 서로 만나서 토론하는 것이 병행되었다.

서신 왕래 전체로 볼 때, 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우정, 격려와 도움 그

97)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벨평화상에 대한 최초 추천자는 빌리 브란트였다.

리고 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는 인간의 삶 등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그들의 동질감과 연대 의식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얼굴 한번 직접 보지 않은 가운데 서신으로만 그러한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볼 수 있던 것이 도움의 요소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얻게 되는 인식과 실제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라는 법은 없다. 반대이거나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일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사람 사이에 교류된 많지 않은 서신들은 그 어떤 사료보다도 가치가 크다. 편지의 행간에는 그들의 감정, 신념 등이 내용과는 별도로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묻어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내면의 이해를 위해 이 편지 사료들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사상 및 정책들의 분석이나 성장 과정을 묘사하는 작업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이 서신 자료들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연구를 심화시켜 가면서 그들의 정책이나 정치도 또한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해 갈 수 있겠다.

필자는 다른 연구들에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탄생과 성장기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치를 통해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역경을 승화시키려고 한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다 깊이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서신 왕래 가운데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도 두 사람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필자는 본 연구 방향을 보다 심화 및 확대하여 이러한 측면들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 싶다.



주제어: 빌리 브란트, 김대중, 서신 왕래, 인간적 관계, 동방정책, 햇볕정책

투고일: 2019년 1월 26일

심사일: 2019년 2월 14일

게제확정일: 2019년 2월 21일

<국문초록>

## 서신 왕래를 통해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관계 1973-1992

노 명 환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두 사람이 교류한 서신들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 및 정책, 사상, 삶을 조명해 보았다. 이 서신들에 의하면 두 사람은 1973년 김대중의 동경 납치 시기부터 1992년 빌리 브란트가 타계하기 까지 20년 동안 깊은 인간적 그리고 동지적 관계를 발전시켜 갔다. 두 사람 사이의 서신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서신 내용들과 맥락적인 연계 속에서 또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제시해 주었다. 예를 들어, 1979년 10·26 사태 이후 서독에서 있었던 한국의 사회민주당 창당 움직임, 1980년 김대중의 사형이 예견되던 시기에 브란트의 사람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되었던 김대중을 유럽으로 망명 시키는 내용 등도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사안들이었다.

주제어: 빌리 브란트, 김대중, 서신 왕래, 인간적 관계, 동방정책, 햇볕정책

## 참고문헌

### A. 일반 문헌과 자서전

『김대중 자서전』 1

『김대중 자서전』 2

김대중,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유럽통합과 독일의 분단·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 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김대중 전대통령 기조강연문, (2009년 5월 21일 목, 한국외국어대 조명덕홀).

노명환,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김동춘, 기외르기 스텔, 크리스토프 폴만 외 지음,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서울: 돌베개 2015.

--,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No. 30 (2012. 02).

--,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9호 (2013. 02).

--,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으로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 및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역사문화연구』 64호 (2018. 08).

최영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변방인들의 인문적 삶과 분단극복 정책」,

『역사학연구』, 53호 (2014. 02).

최영태, 『독일통일의 3단계 전개과정. 동방정책에서 내적 통합까지』, 2018 도서출판 아침이슬.

Brandt, Willy,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1989

Miard-Delacroix, Hélène, Willy Brandt. Life of a Statesman, London/New York (I.B. Tauris) 2016.

Monge, Rolando Araya, Testigo de excepcion, San Jose (Costa Rica) 2014.

Noh, Meung-Hoan, "The Impacts of the "Berliner Mauerfall"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on the Tasks of Korean Unification: Focused on the Northern Policy of Roh Tae-woo and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jung", 『역사문화연구』, 제 35집 (2010. 2. 28).

Yun, Isang/ Rinser, Luise, Der Verwundete Drache. Dialog über Leben und Werk des Komponisten, S. Fischer Verlag GmbH 1977. (번역서: 정태남역, 『윤이상과 루이제 린저의 만남!, 상처받은 龍』, 서울: 영학출판사 1988; 홍은미역, 『윤이상, 상처입은 용. 윤이상·루이제 린저의 대화』, 서울: 랜덤하우스 2005; 윤이상 추모 기념사업회의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출간, 『윤이상, 상처입은 용』,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7).

## B. 서신과 문서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BA (Willy Brandt Archiv),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빌리 브란트가 앞의 김대중 편지 (1979년 10월 20일의)에 대해 1979년 11월 20일에 보낸 답장.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1,

Laufzeit: 01.1979 - 12. 1979.

루이제 린저가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1월 12일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3, Laufzeit: 01.1979 - 12. 1979.

브란트가 린저의 11월 12일 편지에 대해 11월 27일 보낸 답장.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3, Laufzeit: 01.1979 - 12. 1979.

리 브란트가 대한민국 대통령 최규하에게 7월 4일 보낸 전문.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Veronika Isenberg가 브란트에게 보낸 보고서. WBA.,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딩겔스가 브란트에게 보낸 메모.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프로이텐베르크와 조남홍이 브란트에게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빌리 브란트가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보낸 전문을 인용한 사민당 기

자회견 내용.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04, Laufzeit:

01.1980 - 12. 1980.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84년 8월 3일에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36, Laufzeit: 01.1984 - 12. 1984.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85년 1월 4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37, Laufzeit: 01.1985 - 12. 1985.

1985년 1월 24일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보낸 답장. WBA., Aktengruppe: A

11.4, Signatur (alt): 137, Laufzeit: 01.1985 - 12. 1985.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88년 4월 24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89년 5월 24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 1992.

- 1989년 10월 19일자 브란트의 한국 방문 계획 (10월 23-31일) 문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0년 7월 2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외무부의 쇤펠더(Schönfelder)가 브란트에게 1990년 8월 8일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빌리 브란트가 김대중에게 1990년 8월 31일에 보낸 편지.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보낸 축전.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1991년 10월 2일 대담에 대한 회의록. WBA.,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김대중이 1991년 11월 5일 브란트에게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 김대중이 브란트에게 1992년 5월 27일 보낸 서한. WBA., Aktengruppe: A 13, Signatur (alt): 172, Laufzeit: 06.1987 - 06.1992.

<Abstract>

## **The Relations between Willy Brandt and Kim Dae-jung viewed from the Correspondences 1973-1992**

Meung-Hoan Noh  
(HUFS)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illy Brandt and Kim Dae-jung. Through this I tried to illuminate their thoughts, and their lives, focusing on the letters exchanged between 1979 and 1992. According to these correspondences, the two people developed deeply human and cognitive relationships for twenty years from the time of the kidnapping of Kim Dae Jung in 1973 to the annihilation of Willy Brandt in 1992. The content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people also presented various important facts in contextual connection with correspondence with others. For example, There were the movements of South Korea's Social Democratic Party establishment in West Germany after the October 26, 1979 incident, and the Exile Question of Kim Dae Jung to Europe, which was discussed between Willy Brandt's people and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death sentence of Kim Dae-jung in 1980. The Informations were a matter of opening a new knowledge of the history of the times.

**Key words: Willy Brandt, Kim Dae-jung, Correspondence, Human Relations, Ostpolitik, Sunshine Policy**

